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송대관이 키운 가수 김양 데뷔 음반 발표

트로트 가수 송대관(62)이 육성한 가수가 배출됐다.

송대관은 오디션을 통해 여자 신인 김양(29·사진)을 발굴했고 보컬 지도, 녹음디렉터, 코러스에 이어 공동 활동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데뷔음반 타이틀곡인 트로트 '우지 마라'를 발표한 김양은 송대관이 후계자 양성에 뜻을 두고 진행한 오디션에서 200여 명의 경쟁자를 뚫고 뽑혔다. 송대관은 MBC 합창단 출신인 김양의 구성진 창법, 가수를 향한 열정을 높이 사 후한 점수를 줬다고 한다.

송대관의 소속사인 송엔터테인먼트는 "김양이란 예명도 송대관 씨가 붙여줬다"고 말했다.



'서울뚝배기'→18년만에 '돌아온 뚝배기'로 '종합병원'→12년만에 '종합병원 시즌 2'로 추억의 드라마 돌아온다

90년대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추억의 드라마들이 다시 안방극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옛 스타와 원작의 익숙함은 중·장년층들에게 추억을 상기시켜주고, 신세대 연예인들도 투입돼 젊은 시청자까지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9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서울뚝배기(KBS)'가 18년 만에 일일연속극 '돌아온 뚝배기'로 부활, 오는 6월2일 첫방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뚝배기'는 설령탕집을 운영하는 한집안을 배경으로 서민들의 일상을 현실적이면서도 소소하게 담아내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말끝마다 "~했길랑요"라고 말했던 식당 종업원 주현, 특유의 콧소리를 내며 "실례합니다~양"이라고 인사를 건넨 카페 여주인 김애경을 비롯해, 오지명·최수종·도지원·양동근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시대가 변한 만큼 극의 분위기와 이야기 전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설령탕집이라는 배경이 같고 주요 인물들의 캐릭터가 살아 있어 배역 캐스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작에서 오지명이 연기했던 설령탕집 주인은 현재 대하드라마 '대왕 세종(KBS)'에서 태종 역을 맡은 김영철이 맡았다. 김애경이 연기했던 카페 여주인에 박해미가, 주책맞고 눈물 많은 강 사장의 여동생 역에는 이경진이 캐스팅됐다. 또 최수종이 연기했던 박만봉 역에는 강경준이 낙점됐다.

일일극 '미우나 고우나(KBS)'의 이덕건 PD가

1991년 당시 '서울뚝배기'의 조연출을 맡은 인연으로 연출을 맡게되며, 극본은 '서울 뚝배기'를 비롯해 '한지붕 세가족' '서울의 달(MBC)' 등 사회적 질은 드라마로 주목받아온 김운경 작가가 맡았다.

드라마 '종합병원(MBC)'도 종영 12년 만에 '종합병원 시즌 2'로 부활한다. '뉴하트(MBC)'에 이어 또 하나의 의학 드라마 히트작으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합병원'은 1994년 2월부터 2년 동안 방송됐던 드라마로 의학드라마의 원조다. 당시 최고 시청률이 43%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며 전도연·이재룡·전광렬·신은경·김지수·구본승 등 출연진들 모두 큰 인기를 얻어 '스타의 산실'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신참 레지던트 김도훈 역을 맡았던 이재룡이 '종합병원 2' 주인공으로 다시 출연하며 1편에서 이재룡과 호흡을 맞췄던 신은경·김지수 등 주요 출연진들의 캐스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극본은 1편의 극본을 맡아 인기 드라마 작가로 자리잡은 뒤 '열인' '주몽' 등의 히트작을 낸 최완규 작가가 다시 맡았다. '종합병원 2'(가제)는 빠르면 올 하반기 안방극장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해 드라마로 방영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전의 전쟁(SBS)'은 매회 유니버스 형식으로 재구성한 '전의 전쟁-오리자날'로 새롭게 각색, 케이블 채널 tvN을 통해 3월 7일부터 전파를 타고있다. 지상파에서 다룰 수 없었던 사채시장의 비정하고 냉혹한 세계를 그대로 담아 인기몰이 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합병원 시즌 2'의 주인공 이재룡.

MBC '달콤한 인생' 오연수



MBC TV 인기 드라마 '주몽'에서 유화부인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오연수(37)가 농도 짙은 멜로물에 도전한다. 긴 생머리가 '트레이트 마크'였던 그는 데뷔 후 처음으로 짧은 컷머리 차림을 한 후 3일부터 방송하는 MBC TV '달콤한 인생'(극본 정하연, 연출 김진민)에 출연한다.

"추위·졸음에 베드신 적다 잠들어"

"'주몽'에서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배역 이미지에 맞게 머리를 잘랐어요. 태어난 후 이렇게 짧은 머리는 처음이라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기도 했죠."

그는 이 드라마에서 일본어 통역사의 꿈을 접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돼 살아가는 윤혜진 역을 맡았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일본 홋카이도로 훌쩍 여행을 떠났다가 이준수(이동욱 분)를 만나 묘한 인연으로 얽혀 짧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멜로를 드라마에서나마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따름이지요. 제 나이 또래의 여성이라면 그런 사랑을 한번쯤 꿈꿀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결혼한 사람이라면 현실에서는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성들은 바람을 피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사랑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는 "일본 촬영 때 너무 추워서 고생했고 밤에는 졸음과 싸워야 했다"며 "그런 파격적인 베드신은 TV에서는 처음 찍었지만, 추위와 졸음 때문에 베드신을 찍는 사이에 잠이 들기도 했다"고 에피소드를 전했다.

복잡한 멜로 관계와 미스터리가 뒤얽힌 이 드라마는 윤혜진-하동원(정보석 분) 부부를 중심으로 이준수-홍다예(박시연 분)가 애정 관계로 엮이는 이야기를 담는다. /연습뉴스

5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포비든 킹덤	47만5천82	54만6천721
2	테이큰	32만1천715	137만7천461
3	스트리트 킹	5만8천146	24만8천740
4	킬워드 미	5만4천288	19만2천660
5	삼국지: 용의 부활	4만4천608	101만7천672
6	버킷 리스트	4만2천687	20만7천357
7	G.P 506	3만8천713	93만1천567
8	추격자	2만9천239	503만9천128
9	패슬로지	2만6천197	7만9천449
10	나의 특별한 생애 이야기	1만8천815	17만7천966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43.0
2	이산	MBC	30.2
3	엄마가 뽀뽀	KBS2	29.3
4	조강지처 클럽	SBS	25.9
5	온 에어	SBS	23.1
6	무한도전	MBC	23.1
7	행복합니다	SBS	22.5
8	이현동 마님	MBC	22.2
9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MBC	18.6
10	KBS 뉴스9	KBS1	18.6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드라마
2	나는 전설이다	스릴러
3	명장	액션
4	위	액션
5	황금나침반	판타지
6	미스트	SF
7	무빙비도시	액션
8	더 게임	스릴러
9	식객	드라마
10	집결호	드라마

(자료제공:비디오코리아)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원	에픽하이
2	서커스	MC몽
3	미안해요	거미
4	이이처럼	김동률
5	다줄게야	이승기
6	우산	에픽하이
7	사랑해	미미티 미우스
8	월 모어 타임	주요리
9	기억을 걷는 시간	널
10	슬픈 다짐	다비치

(자료제공:멜론)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최고의 피부 건강을 위한 신 세대의 선택

IOPE